

## 또 오르는 유류할증료... 부담 가중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2만2000원으로 인상  
역대 최고... 2013년 3월 1만3200원 기록 갱신  
'금값' 항공권·휴가철 좌석난까지 도민 부담 ↑

다음달 국내선 항공 유류할증료가 고유가 영향으로 또 다시 오른다.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여름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이미 제주기점 항공권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유류할증료까지 더 오르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됐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1만9800원)보다 2200원 오른 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마찬가지로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2만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년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이 켈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2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 2013년 3월(1만3200원)보다 8800원 오른 수치다.

지난 2월 5500원이었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3월 8800원, 4월 9900원, 5월 1만4300원, 6월 1만7600원, 7월 1만9800원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고 6개월 사이 4배 가까이 올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면

서 사실상 소비자들이 내야 할 운임 부담도 커지게 됐다. 국내선 왕복 기준으로 항공 기본 운임에 별도로 유류할증료와 공익이용료까지 5만2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제주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기 좌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항공권 가격이 이미 금값인데다 여름 성수기로 좌석 구하기도 어려워 소비자들은 공시 운임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항공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8월 김포-제주 구간 항공권을 살펴보니 특가나 할인 운임 좌석은 대부분 매진됐고 일반 운임 좌석은 편도 기준 10만원~14만원대를 넘어서고 있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앞으로 유류할증료도 줄어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a@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원 구성을 마무리한데 이어 11일 제40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8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상국기자

## “도정·교육행정 정책방향 등 집중 심사”

제주도의회 11일 8일간 일정으로 임시회 개최  
김경학 의장 “지속가능한 미래정책 탄생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 제40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8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원 구성을 마무리한 도의회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 1건, 도시사 제출 의안 32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을 포함한 34건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경학 제주도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새롭게 가고자 하는 도

정과 교육행정의 정책에 의원들의 아이디어와 정책이 덧대어져 보완된다면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 차원 높은 정책으로 탄생되리라 믿는다”면서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멀리 내다보여, 작은 틀에서는 집행내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를 집중해서 따져보고 알찬 정책 제안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최우

선 가치는 오로지 도민과 미래”라며 “도민의 이익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언제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소통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불식시켜 나가겠다”면서 “의견수렴 및 대화를 통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교육행정의 모든 단계에서 칸막이를 걷어내겠다”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 ‘유네스코 유산’ 메타버스로 돌아본다 도, 과기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주관하는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개발지원 사업이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콘텐츠를 지원하며 도는 국비 15억 4000만원, 지방비 7억원 등 총 22억

4000만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역기반 메타버스 조광역권 서비스 발굴 및 정부 사업 대응을 위해 대구시, 광주시와 함께 조광역 메타버스 협약을 준비해온 결과, 3개 지역의 전략적 상호협력력을 바탕으로 이번 공모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위한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사업이며, 제주-대구-광주의 도시 공간정보와 지역특화 관광서비스 분야이다.

제주-대구-광주의 자원을 바탕으로

로 협력하는 관광테마 조광역 연계 전략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제주는 ‘자연(세계자연유산)관광’, 대구는 ‘산업관광’, 광주는 ‘예술관광’ 테마로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인프라를 활용해 가상경제권을 형성하는 관광메타버스 도시로서 역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는 거문오름, 만장굴 등 ‘세계자연유산마을’을 실제 공간 체험이 가능한 가상공간으로 구축하고 보존과 이용 활성화와 교육, 관광여행, 상품 판매 등과 ‘세계지질공원인 우도지역’의 해녀 관련 주요 명소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조광역권 협력적 모델로서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데이터 개방성 및 공간 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 공공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비율 늘린다

도, 11일 관련 조례 공포

제주도가 공공재건축사업시 용도지역 상향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용적률 혜택 중 절반인 50%를 임대주택공급 비율로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소규모재건축 사업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규정하

는 조례를 1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시 법적 상향용적률의 120%까지, 공공재건축사업시 용도지역 상향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용적률 혜택 중 절반인 50%를 임대주택공급 비율로 규정하도록 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404**  
잠정집계 11일  
<17시 기준> 누적 24만2941



제주삼다수와 함께  
친환경 세상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연의 손길이 빚어낸  
생명력이 가득한 물

제주 삼다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